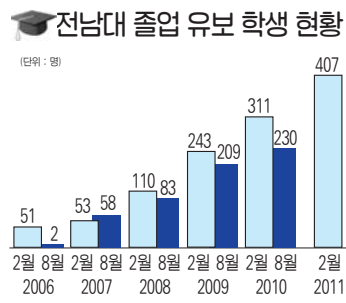


‘대학 5학년생’ 급증

졸업 학점을 모두 따고도 학교를 나가지 않는 대학생들이 늘고 있다. 실업난 속에 취업을 못하거나 재수강을 통해 학점을 관리하려는 대학 4학년 학생들이 한 두 학기를 추가로 다닐 수 있는 ‘졸업유보제’를 통해 졸업을 미루고 있는 것이다. ‘졸업유보제’란 졸업예정자들이 졸업과 동시에 실업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학이 실시하는 것으로, 졸업요건을 충족한 학생이 본인 의사에 따라 졸업을 하지 않고 두 학기까지 졸업을 연기할 수 있다. 신청자는 수강은 물론 학교 시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강 학점에

다른 납입금 외에 기성회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24일 전남대학교에 따르면 지난 2006년 2월부터 실시한 ‘졸업유보제’를 택하는 학생들이 매년 배 이상 증가하면서 청년 실업난을 실감하게 하고 있다. 올 2월 졸업하지 않고 졸업유보제를 신청한 학생은 407명으로, 처음 시행했던 2006년 2월의 51명에 비하면 5년 새 8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에는 2월에 53명, 8월에는 58명이 신청해 시행 1년 만에 2배가



남은 111명이 유보제를 택했다. 이어 2008년에는 2월 110명·8월 83명으로 193명이, 2009년에는 2월 243명·8월 209명으로 452명이 유보생이 되는 등 증가세가 확인해졌다. 지난해에는 2월 311명·8월 230명이 신청해 541

취업난에 학점 다 따고도 졸업유보 전남대 올 407명...5년새 8배 늘어

명을 넘어섰고, 올해는 2월에만 407명에 달했다. 이처럼 졸업유보제가 학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는 오로지 ‘취업’ 때문이다. 기업들은 졸업자보다는 졸업예정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 대학 4학년생들은 유보기간에 재수강 등을 통해 취업요건에 맞는 학점관리를 할 수 있다. 또 취업 공부를 위한 도서관 등 학교 시설물 이용이 가능한 것도 이점이다. 올 2월 졸업한 김수지(여·23·법학 전공)씨는 “졸업유보제를 이용해 학생 신분으로 학교에 남아 있을 수

있었다”며 “교내 취업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고, 언어교육원 영어수강 등이 저렴한 가격에 가능해 취업 준비에 장점이 많다”고 말했다. 전남대 홍보팀 관계자는 “취업난이 갈수록 극심해지면서 졸업 후에도 학교를 떠나지 못하는 ‘5학년생’들이 최근 급증하는 추세”라며 “취업난은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와 사회 차원의 문제라는 인식으로 도서관과 취업프로그램 등 학교시설을 이용하면서 취업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고 밝혔다. /채희경기자 chae@kwangju.co.kr

알림 광주일보-국회도서관 정보공유 협정 더 깊이 있는 뉴스 제공합니다

광주일보가 국회도서관의 방대한 정보활용을 보다 깊이 있는 뉴스를 제공합니다. 광주일보는 25일 국회도서관과 상호협력 협정체결 조인식을 갖고 두 기관이 보유한 모든 정보와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일보는 1952년 창간호부터 현재에 이르는 광주일보의 모든 자료와 사진, 전산처리가 완료된 데이터베이스를 국회도서관에 제공하게 되며, 국회도서관으로부터는 ▲98만권의 전자도서 ▲해방이후 국내 전체 석·박사 학위논문 138만건 ▲국내의 학술지 355만권 ▲기타 비디오·오디오 자료 등 총 1억5천만페이지에 달하는 지식정보를 제공받게 됩니다. 광주일보 전 기사는 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ID를 부여받아 보다 깊이 있고 정확한 뉴스로 독자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광주일보기자 chae@kwangju.co.kr



25일 광주일보사 회의실에서 광주일보 유재일 편집장(오른쪽)과 국회도서관 유재일 관장(왼쪽)이 상호협력조인식을 갖고 협정서를 교환하고 있다.



데뷔전 앞둔 광주 FC 페스티벌

27일 오후 광주 서구 빛고을종합체육관에서 열린 '광주 FC 페스티벌'에서 광주 FC 선수단과 시민모델들이 유니폼, 트레이닝복 등을 입고 패셔쇼를 펼치고 있다. 광주 FC는 내달 5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대구 FC를 상대로 K리그 데뷔전을 치른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순천시민 야권연대 찬성 33% > 반대 31%

민주당 지지자는 반대 41% > 찬성 31%

순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의 야권연대 문제를 놓고 논란이 거둬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순천시민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야권연대’에 대한 찬성이 더 높게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관련기사 3면> 27일 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17~18일 이틀 동안 순천시 성인남녀 1000

명을 대상으로 야권연대를 위해 순천을 양보하는 방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성이 33%, 반대가 31%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 문제라는 점에서 반대가 더 높게 나올 것이라는 당초의 예상을 깨뜨린 결과라는 점에서 순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의 야권연대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평가다. 반면, 여론조사 응답자 가운데 민주당 지지자들의 답변을 분석한 결과, 반대가 41%로, 찬성(31%)보다 10%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이 역시 민주당 지지자들만を対象으로 분석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예상보다 찬성률이 높다는 분석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실문에 ‘차기 총선 및 대선을 위해’라는 문구를 넣을 경우, 결과에 대한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점에서 ‘야권연대를 위해 순천을 양보하는 방안에 대한 찬반’으로 단순화했다”며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순천시민의 야권연대에 대한 찬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변호사 개업인사

저는 이번에 광주지법 순천지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정년 법원을 떠나 변호사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배웠던 주선 후의에 감사드리며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주요 학력 및 경력> 순천고(31회), 서울대 법대(82학번) 제34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24기) 수료 광주지법, 광주지법 제2지원, 광주지법 가정지원, 전주지법 정읍지원, 광주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광주지법 순천지원 부장판사 <변호사 조재건 올림> ■업무개시: 2011년 2월 22일 ■개업장소: 순천시 황지동 870-4 거향빌딩 2층 ■대표전화: (061) 727-7099 ■개업연: 2011년 3월 7일 (월) 17:00부터

담양서 시 재발병

전남 한달만에...소강상태 구제역 울산서 발생

‘중식’되는가 싶던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남에서 다시 발병했다. 지난달 20일 보성에서 AI가 확진 판정을 받은 뒤 한달여만으로, 재확산하지 않을 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소강’ 국면에 접어들다가 싶던 구제역도 울산에서 추가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이 망연자실해하고 있다. 전남도는 담양군 담양읍 한 육용 오리 농가에서 의심 신고가 접수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한 결과, 26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로 최종 확진됐다고 27일 밝혔다. 담양에서는 지금껏 AI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 농장에서는 지난 24일 사육중인 오리 1만2000마리 중 1000여마리가 폐사하면서 의심 신고가 접수됐고 25일 고병원성으로 변이되어 쉬운 ‘H5’형 AI 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은 해당 농가의 오리를 모두 살(殺)처분·매몰하는 한편, 해당 농가에서 지난 16일 경기도 여주의 한 부화장에서 새끼오리를 입식한 점에 주목하고 역학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담양에서는 발생 농가를 중심으로 반경 10km이내에서 90 농가가 닭·오리

등 78만 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오리를 입식한 경기도 부화장에서는 AI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지난 23일 반경 500m 이내의 다른 농가에서 AI가 발생했다. 이 부화장에서 담양을 비롯해 도내 11개 시·군 18개 농가가 19만7000마리를 입식한 점을 감안해 이들 농장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AI 재확산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주춤’하던 구제역도 다시 발병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5일 울산시 울주군 삼남면 상천리의 한 축산농가에서 돼지 5마리가 구제역 증상을 보인다고 신고해 정밀검사를 한 결과, 구제역 양성판정이 나왔다고 27일 밝혔다. /지식기자 dok2000@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남부대학교
(062) 970-0114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
전남과학대학
(061) 360-5050

구제역 2차 접종이 완료되었습니다 매몰지 침출수 오염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 민간 전문가와 함께 매몰지를 철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질·환경·토목 분야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40개 민간조사팀이 매몰지를 철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2. 정비가 필요한 매몰지는 3월 말까지 보수공사를 마칠 예정입니다

민간 환경전문가 감시제, 주민신고제를 도입해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일 예정입니다.

3. 침출수를 안전하게 처리해 지하수와 토양오염을 막겠습니다

우려스러운 매몰지의 경우, 침출수를 뽑아내 멸균 소독한 뒤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4. 철저한 수질 관리로 전염성 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매몰지 주변 지하수 관정 4000여 곳의 수질을 검사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하겠습니다.